

# LEGAL UPDATE





ESG센터

Feb. 2023

## Focus sector: 패션 산업

- 가치사슬 전후방에서 유발되는 사회, 환경 부정적 영향의 식별과 관리가 중요 -

화우 ESG 센터에서는 매월 3주에 걸쳐 산업별 ESG 현황을 살펴봅니다. 2월의 Focus sector는 패션 산업입니다. UN 발표 자료에 따르면 패션 산업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환경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며 노동집약적인 특성이 있어 환경 및 노동 규제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01	02	03	04
<h3>Standard</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ASB 주요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화학물질 관리,</li> <li>- 공급망 환경적 영향,</li> <li>- 공급망 노동 조건과 원자재 조달 리스크 관리</li> </ul> </li> </ul>	<h3>Initiative</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AC: 소비자 산업을 위한 글로벌 비영리 연합체. 2011년에는 Higg Index 개발</li> <li>• ZDHC: 패션 산업 내 유해 화학물질 무배출과 환경 피해 저감 노력</li> </ul>	<h3>Policy</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패션산업 친환경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전환 노력</li> </ul> </li> </ul>	<h3>Trend</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타고니아, 재생농업 투자: 재생농업 유기농 면화 인증 프로그램을 론칭</li> <li>• 나이키, Move to Zero: 2018년부터 탄소 및 폐기물 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li> </ul>

### 1. ESG 스탠다드

#### • SASB 기준 주요 이슈

패션 산업의 주요 이슈는 제품 화학물질 관리, 공급망 환경적 영향, 공급망 노동 조건과 원자재 조달입니다. 의류 및 신발 제품에는 미량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화학물질 유형 등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 발생은 규제적 제한 뿐 아니라 리콜, 소송 및 평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설계 및 제조 단계에서 화학물질 사용을 관리하고, 공급업체와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도모해야 합니다. 패션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은 공장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수질오염,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 환경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평판과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은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운영 효율성 및 자원 소비를 개선하고 자원

부족 및 규제 관련 비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공급망 노동 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 공정 임금과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이 포함됩니다. 산업 특성 상 직접 비용이 낮은 국가의 공급업체와 계약 시 근로자 보호 규정 집행이 제한된 지역에서 제품이 제조될 수 있고, 안전 사고 발생, 파업 등의 업무 중단 발생 시 장단기 비용과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공급망 관리 기준,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공급업체의 노동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패션 산업은 수많은 원자재에 의존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므로, 원자재 부족, 공급 중단 및 가격 변동성과 같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공급업체와의 관계 관리, 인증 표준 사용, 대체 원자재 조달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여 수익 제한, 자본 비용 증가와 같은 문제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 2. ESG 이니셔티브

### (1) Sustainable Apparel Coalition, SAC

SAC는 소비자 산업을 위한 글로벌 비영리 연합체로, 나이키, H&M, 파타고니아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의류 기업을 포함하여 28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SAC는 섬유, 의류, 신발 등 산업에서 불필요한 환경 영향을 줄이고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2011년에는 Higg Index를 개발했는데 이는 섬유 및 신발 제조와 공급망에 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를 활용하여 기업은 공통적인 사회 및 환경적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 (2) Zero Discharge of Hazardous Chemicals Programme, ZDHC

ZDHC는 패션 산업 내 유해 화학물질 무배출과 환경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조직으로, 산업 전반의 15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ZDHC의 로드맵 제로 프로그램(Roadmap to Zero Programme)은 근로자, 소비자 및 지구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지속가능한 제조를 위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패션 업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유해한 화학 물질을 제거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 3. 국내 정책·규제 동향

### (1)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패션산업 친환경 산업·디지털 전환 노력

작년 8월 산업부는 주요 섬유패션기업 대표들과 정책 간담회를 통해 산업 친환경 및 저탄소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계 섬유패션 시장은 EU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소비자의 친환경 인식 확산, 글로벌 패션기업의 지속가능발전 추구 등으로 인해 친환경·리사이클 패션 비중이 크게 확대될 전망임에 따라, 정부는 △공공조달 분야 등 친환경 섬유시장 확대, △생분해·리사이클 등 친환경 섬유소재 기술개발, △폐의류 등 자원순환형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친환경·저탄소화 이행 방안과 함께 디지털 전환, 산업용 섬유 등 주제를 포괄하는 섬유패션산업 종합발전전략을 업계와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22.9.에는 섬유패션 데이터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고 섬유패션 분야의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본격 착수한 바 있습니다. 섬유패션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면 수요 맞춤형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져 데이터 활용 편의성이 향상되고,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4. 기업 동향

### (1) 파타고니아, 재생농업 투자

상업적 농업의 탄소 배출 문제가 대두되고, ESG 규제 강화 등으로 기업 공급망의 탄소 배출량이 관리 대상이 됨에 따라 재생농업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면화 의존도가 높은 패션 기업 역시 재생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패션 업체 파타고니아는 오는 2030년까지 100% 재생농업으로 생산한 면화를 사용할 것을 목표로 하고, 농가 참여 독려를 위하여 재생농업 유기농 면화 인증 프로그램을 론칭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식품이나 면화를 생산하는 농가는 2,500개 이상입니다. 또 지난해에는 재생농업으로 생산한 면화를 이용한 제품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 (2) 나이키, Move to Zero

나이키는 2018년부터 탄소 및 폐기물 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는 Move to Zero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과학에 근거한 목표를 추구하며 업계 전반에 걸쳐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제품의 탄소 및 폐기물 배출량을 좌우하는 데 소재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이키 플라이니트, 재활용 폴리에스터, 나이키 에어 등 지속가능 소재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에 영향이 작고 오래 지속되며, 재활용이 쉬운 신소재와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ntacts

### 신승국

미국변호사

T. (+82) 2 6182 8502

E. synn@yoonyang.com

### 이광욱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35

E. kwlee@yoonyang.com

###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yoonyang.com

### 조준오

변호사

T. (+82) 2 6003 7080

E. jojo@yoonyang.com

### 양희

컨설턴트

T. (+82) 2 6003 7674

E. hyang@yoonyang.com

### 김현지

컨설턴트

T. (+82) 2 6003 7470

E. khji@yoonyang.com